

- 1.종교다원주의 배경
- 1.동성애 반대
- 1.차별금지법 반대
- 1.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21호
5월 11일
2019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 알린다

6월 1일 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동성애 합법화 반대

성정성제로 반대여론이 심한 가운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5월 31일(금)-6월 1일(토) 양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에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6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대한문광장과 시청 앞 일대에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대회장 이주훈 목사, 이하 국민대회)는 올해로 5회째 열리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가정을 존중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선포하고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알리며 동성애 합법화반대를 외친다.

국민문화축제 'Love is Plus'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민대회, 러플페스티벌, 러플퍼레이드 순서로 진행되는 데 대회장 이주훈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준비위원장 김원평 교수의 인사말, 대회선언, 성악가 공연으로 문을 연다.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열린 본격적인 국민대회는 안바라 이사언서의 사회로 동성애의 사회적 폐해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또한 각 주제별 강연과 각 단체의 발언이 쏟아지고 지역별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 발언과 다음세대 공언, 성명서 낭독이 이어진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특별무대에서는 노래와 이벤트, 토크, 춤, 연주, 각종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LOVE IS PLUS FESTIVAL' (러플 페스티벌)이 열린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지는 대한문광장을 출발해 송대문, 서울시청,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대한문을 코스로 하는 러플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러플 페스티벌에서는 참여이벤트로 나에게 사랑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기자회견

일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11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주최: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이란'을 주제로 한 개릴과 토크 토크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스체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동성애 퀴어축제가 열리는 5월 한 달을 '한국교회특별기도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동성애 합법화의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전 세계를 올바른 성윤리로 선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4월 26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대회 취지와 필요성, 방향 등에 대해 개괄적 설명을 덧붙였다.

대회장 이주훈 목사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며 동성애자들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지 않았음을 국민대회에서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기다리고 포용하기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건강한 가정은 파괴될 것이며, 잘못된 성문화가 성평등과 인권이라는 가면으로 우리 사회를 유린하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므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해마다 개최되는 동성애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변인 박종연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군대 내 동성애에 의한 성폭행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동성애와 연관된 에이즈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을 중단하라 △나래와의 협력적인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윤리의식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라 △동성애의 위험성을 계몽하라고 요구했다.

'탁월한 생각으로 살아갑시다'



조용목 목사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8,9)

배운 것이 적어도 생각하는 태도가 탁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이 배워도 생각이 유지되거나 열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의 자기 생각이 내일의 자기 인격이 되고 삶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과 아울러 탁월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는 일의 중대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잠 23:7)고 하였고,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렐 6:19)고 하였습니다. 성경 율가에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생각에 대한 심오한 교훈이 있습니다. 재앙이 대단히 많았고 일곱 아들과 세 딸과 함께 유복한 생활을 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종들과 짐승들을 잃고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다 잃었을 뿐 아니라, 몸 전체가 악성 종기로 뒤덮여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욥은 한 가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는 것입니다. 욥은 어느 날부터 욥시 그에게 무서운 재난이 닥쳐오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생각은 점점 구체화되었고 그는 그러한 생각에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생각이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품성과 판단력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재앙을 불러들이게도 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게도 합니다.

둘째, 탁월한 생각을 하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탁월한 생각 중에 가장 탁월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과 용사들이 가졌던 탁월한 행동은 그들이 가진 탁월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생각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위인들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면 가차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버렸습니다. 열두 장막꾼에 관한 이야기는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결과의 차이를 매우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열 장막꾼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기쁨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여 파멸을 맞이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가나안을 기점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한편 우리의 생각을 살펴십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은 생각과 불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아등고 괴롭고 어려움이 많아도 여러분의 생각은 현실에 묶이지 말고 내일에 대하여 소망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변화를 생각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사랑 받는 자, 부유한 자입니다.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에 부합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기문 시대, 장소, 남녀의 성, 유전적 자질과 같이 사람에게서는 변경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어진 조건들이 그의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단과 선택과 노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생각은 주어진 상황을 능가할 만큼 그 사람의 생애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죽음 후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현실과 미래와 영원한 삶에까지 미치는 탁월하고 복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생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병국 목사)는 지난 5월 9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도 준비했다. 제반사항과 각종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김운용 목사)는 지난 5월 9일(목) 오후 2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특히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제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8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를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신재영 목사
새기침교회

부총회장 후보



정의섭 목사
한소망교회

총무 후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서기 후보



정영진 목사
순복음갈릴리교회

재무 후보



한순남 목사
순복음반송교회

회계 후보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2019년 4월 2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영풍회, 부흥과 복음전파의 사명 재확인

제27기 부흥사연수회 개최...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자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에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길 부흥사들을 위한 연수회가 진행됐다. 한국기독교영풍회(대표회장 정상업 목사)는 지난 4월 26일(금) 서울 개봉동 한영신대에서 제27기 부흥사연수회를 열고, 부흥과 복음전파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대표회장 정상업牧사는 환영사를 통해 복음의 향기가 사라진 시대의 위기를 지적했다. 정목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세상의 말들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교회 안에 경영론, 체제론, 심리학 등 세속적 학문들이 들어와 있다. 하지만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울은 복음을 입으로만 자랑한 것



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이다”라면서 “결국 복음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시어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목사는 “영풍회는 어느 부흥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38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의 긍지요 자부심이다”라고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개강예배는 이성배 목사의 사회로 선교회장 조경환 목사가 기도한 후, 증경회장 엄신형 목사가 ‘성령충만’을 주제로 설교를 전했다.

2020 서울페스티벌 전도대회, 한국교회 재부흥 희망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도와야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장총)는 지난 4월 25일(목) 2020 서울페스티벌(2020년 10월 9~11일) 준비모임에 참여하여 대회 준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0 서울페스티벌은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방문하여 개인전도 양육을 포함한

전도대회로서 한국교회 재부흥의 중요한 전도대회로 예상이 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참석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이사인 로버트 컨빌 박사(세계성서공회 회장)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의 110만 명이 참석한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의 성과를 상기

하면서 “2020년 서울페스티벌이 한국교회의 재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날 참석한 송태섭 목사는 인사말에서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에 참석하였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면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부흥에 큰 사건이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성공적인 2020 서울 페스티벌이 되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도와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 전도대회에 대하여 마크 로버츠 선교사가 설명하였다. 2020년 10월 9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되며 장소는 올림픽체조경기장이나 평화공원에서 개최할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돕는 집회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전도집회에 10%, 45%는 준비, 그리고 45%는 양육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CTS기독교TV, 제 1기 학생 기자단 발대식

학생기자 20명으로 구성...다양한 기독교 교육과 소식 전한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지난 4월 26일(금) 제 1기 CTS 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학생기자 20명으로 구성된 이날 발대식에는 학생기자단으로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추가로 영상 촬영관련 교육과 뉴스 취재를 위한 기사 작성법 등의 교육을 통해 기자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20명의 제1기 CTS 학생 기자들은 앞으로 기독교 교육과 다음세대를 대표하여 새로운 소식을 발굴 또는 숨은 소식을 전하며 활동하게 된다.

한 달에 1건 씩 뉴스를 제작하여 좋은 뉴스로 뽑히게 되면 CTS뉴스를 통해 방송 될



예정이며 2019년 12월 까지 활동하는 동안 우수 학생에게는 연말에 시상할 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 참여한 김기배 원장(CTS 아카데미)은 “학업으로 바쁜 중에도 꿈과 열

정을 가지고 학생 기자로 지원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하며, “활발한 취재활동으로 다양한 기독교 교육과 다음세대 소식을 알리고 빛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세군, 은평의 마을서 ‘한마을 대축제’



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4월 27일(토) 서울특별시 은평의 마을에서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를 개최했다.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는 구세군과 지역이 하나 되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된 축제로서 바자회, 먹거리 장터, 문화 공연, 명사 초청 이벤트,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구세군 장민희 서기장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구세군 한마을 대축제’ 개회식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은평구(갑) 국회의원 박주민, 은평구(을) 국회의원 강병원, 서문교회 손달익 목사가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본 행사의 주요 후원자인 롯데홈쇼핑과 ㈜에데미가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명사 초청 이벤트로는 구세군 홍보대사

영화배우 이재용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본 축제에는 약 4,000명의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은평의 마을에서 보호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성인 남성 노숙인들도 참여해 각종 문화 공연과 먹거리, 바자회를 즐기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본 축제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은평의 마을, 은혜로운 집, 평화로운 집을 비롯한 전국 구세군 사회복지 시설의 요양 및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은평의 마을은 ‘은혜롭고 평화로운 마을’이라는 뜻으로 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올해 1월 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성인 남성 노숙인 요양시설로써 생활인의 거주보호, 가족 찾아주기과 같은 사업 활동 외에 노숙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부활주일, 생명나눔예배 사랑실천

전국 6곳 299명 성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해

부활절은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이웃과 나누려는 한국교회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소재 예담교회(담임 지인성 목사)는 지난 4월 28일 부활주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를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이날 1~3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아름다운 기적(약 10:30~37)’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이 생명나눔의 선한 사역에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박목사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생명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라며 예수님께 배운 사랑을 실천하자고 요청했다. 설교에 이어 생명을 주고받은 주인공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긴중 영상이 상영됐고, 예배 후 166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같은 시각 동두천교회(담임 이양로 목사)에서도 생명나눔의 귀한 섬김이 이어졌다.



장립 1129년을 맞아 본부를 초청한 동두천교회의 이양로 목사는 담전 6:18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과 나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역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생

명나눔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고, 이 같은 권면에 58명의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동두천교회는 올해 장립기념주일 헌금으로 모인 300만 원을 만성신부전환자들을 위한 휴양시설인 제주 리퍼의집 시설 지원비로 전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제8차 ACTS부설 신학연구소 주관 신학포럼 개최

ACTS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 주제로

제8차 ACTS 신학포럼이 양평에 위치한 아세이연합신학대학교(ACTS) 부설 신학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4월 22일(월)에 개최되었다. 포럼 주제는 ‘ACTS 신학과 신약신학의 과제’였다.

신본주의·복음주의·아세이복음화라는 설립 이념을 갖고 1974년 교회연합적으로 설립된 ACTS는 신학의 이론과 실천의 모든 분야에서 복음 신앙을 통한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중심전리’를 의식적으로 강조하면서 각 신학전공 제 분야를 ‘공관’(供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것은 신학 학제 간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신학의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지향하고 세우나가는 기독교 개신교 신학·신앙운동이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육성담당학과 안경승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논문은 신학과 소속의 두 신약학자들이 발표했다. 김규섭 교수는 “초기 교회 문헌 연구의 관점에서 본 ACTS 신학/신앙운동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첫 발제를 하였고, 이어 허주 교수는 “신학교 육기관으로서 ACTS가 지향해야 할 신약학 분과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제언”의 글을 발

표하였다. 김규섭 교수는 학생 한철하 박사의 두 저서인 「고대 기독교 사상(1970)」과 「21세기 인류의 살길(2003)」 사이의 신학적 연속성을 ACTS 신학/신앙운동의 주요 가치인 △죄사함의 복음 △산 신앙 △교회 연합이란 세 가지 주제로 분석하였다.

나사렛대, 지역 장애인 위한 ‘점자안내지도’ 제작

장애인의 날 맞아 안내지도 100부 제작해 센터 전달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홍보대사들이 장애인들의 날을 맞아 ‘쌍용2동 편의시설 점자안내지도’ 100부를 제작해 지난 4월 18일(목) 쌍용2동 행복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나사렛대학교 임승안 총장, 나사렛대학교 양현홍 사무처장, 나사렛대학교 대외협력실 박상규 실장, 유영체 시의원, 쌍용2동 정해용 동장, 나사렛홍보대사 김건중, 전광섭 행복키움지원단 단장, 행복키움지원단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홍보대사 김건중 외 11명으로 이루어진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들은 평소 시각장애에 인화우를 뿐만 아닌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이 쌍용2동의 편의시설이나 관공서, 음식점 등의 위치 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올해 1월부터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점자제작실의 도움을 받아 지도제작을 시작했다.

쌍용2동 점자안내지도는 관공서, 마트, 음식점, 정류장 위치 등 나사렛대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지도를 제작한 후 장애인점자스티커를 제작해 지도 위에 붙여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지도도를 활용하여 독립보행

이 가능하도록 제작했다.

홍보대사 김건중 대표는 “지난 3개월간 나사렛대학교 주변을 조사하고,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점자제작실에서 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교육을 받았다”며 “아직은 부족한지도이지만 더욱 발전시켜 쌍용2동과 우리대학이 함께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2동 정해용 동장은 “지역의 시각장애인인 단 한 분이더라도 그분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해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아동 ‘숨’ 권리 프로젝트 진행

저소득가정 아동들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숨’ 권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세먼지 발생 시 저소득가정 아동의 마스크 구입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미세먼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한편 약국 또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 중인 미세먼지 마스크는 평균 2천 원에서 3천 원 대이고,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는 5천 원 이상으로 가격이 더 비싸다.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건강과 마스크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의 경우에는 마스크 가격이 부담되어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전국 1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 4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월분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5천만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미세먼지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서울·인천·전북 지역 내 교육기관과도 아동 ‘숨’ 권리 프로젝트를 위한 기탁식을 진행했다. 기탁식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선교연합회 선교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

새성전 헌당예배 드리고 다양한 선교활동으로 선교사와 성도들 격려

은혜와진리교회(당회장 조용목 목사) 세계 선교연합회 회원과 찬양단(크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청년 성도 등 67명으로 구성된 해외 선교팀이 지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7박 8일간 동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활동을 벌였다.

선교팀은 새 교회당의 헌당예배를 드리고,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선교 봉사활동과 함께 교회에서 준비해 간 의류, 의약품, 학용품 등의 선교물품을 전달하며 선교사와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다.

먼저 말레이시아 은혜와진리교회(선교사 존진 목사, 빈센트 마니암 목사)를 찾은 선교팀은 13일(토) 루복안부 성전에서 배안 성전 헌당예배를 드렸다.

가뭄으로 배가 배안까지 운행하지 못해 배안 성전의 교역자와 일부 성도들이 루복안부 성전으로 와서 완공된 교회당 사진을 선교팀에게 보여 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은혜로운 설교말씀과 축하 메시지로 선교사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다.

이어서 14일(주일)에는 루복안부 성전에서 음에마울루 성전의 교역자와 성도들도 참석하여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의 설교원고를 김종덕 목사가 통역하였고, 성도들이 설교말씀을 경청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선교팀 청년들과 찬양단이 위심 찬양과 현지어 특송으로 예배의 은혜와 감동을 더해 주었다.

인도네시아 선교지(선교사 고든 실라반 목사)로 이동한 선교팀은 16일(화) 브라스파기

트리니티 학교와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와 봉사활동을 하였다.

트리니티 학교의 3백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선교팀을 맞아 열렬히 환영해 주었다.

학생들이 특송과 율동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동안 배우고 익힌 찬양 솜씨를 뽐냈고, 선교팀 청년들과 찬양단도 율동 찬양과 특송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히 찬양단이 현지어로 찬송할 때 어린이들이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찬송하므로 선교

팀의 기쁨을 모를라게 해주었다.

선교팀은 낮에 이·미용 봉사로 현지 성도들을 섬기고 오후에는 준비해 간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섬기며 믿음을 북돋워 주고 축복해 주었다.

저녁에는 트리니티 교회에서 시나봉 회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은 난민들을 위한 위로예배를 드렸다. 조용목 목사는 '환난을 이렇게 극복하라' (시 77:1~12)는 제목의 설교말씀으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주민과 성도들이 예배

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에 귀 기울이며 시종 '아멘' 소리가 이어지고 은혜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성전 가득 울려 퍼졌다. 예배 후 선교팀은 성도를 비롯한 주민들에게 준비해 간 선물을 전달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친 선교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현지 성도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과 강렬한 도전을 받아 세계선교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정통 기독교회를 지키기 위한

로마 카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 반대 및 기도회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오후 1시

장소 : 청계천 한빛광장

주최 : WCC · WEA 반대운동연대



■ 생명의 말씀 ■



김 양 인 목사

· 교단 중경총회장
· 순복음광주신학교 학장
· 목양제일교회

오늘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참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적인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아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구나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에 지치고 기분이 울적할 때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다시금 마음 속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양심이 괴롭거늘 하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인간들은 스스로 죄책에서 놓여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해방시킬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사죄의 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에서 해방된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와 동시에 언제 어디서 무슨 재앙을 만날지는 늘 염려하면서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감으로 불안해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을 언제나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선한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과 울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날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놓여 있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위로를 받아서 모든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위로하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 무익한 일에 세월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 6:29) 하셨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큰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각자 받은 사명을 충실히 행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것이 행복한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기쁘게 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할 때 성도님들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며 장차 주

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성경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후사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장차 주 예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 터인데, 그 때에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살아 남은 우리도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올라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시 33:12) 하신 대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즉 이 시간 말씀해 드린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이유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 정

한정연 이종식 신임대표회장



교단의 벽을 넘어 장로들의 커다란 연합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지난 4월 30일(화)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대표회장에 이종식 장로(위례장교교회)를 인준했다. 한정연은 앞서 39회기 대표회장 후보로 이종식 장로를 추천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한 바 있다.

한국CBMC, 신불피해 복구 성금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는 지난 5월 3일(금)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승을 한국CBMC 중앙회장은 "강원도 피해주민들이 재난의 상처에서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라며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실천신학대학원대 출판감사예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박원호)는 지난 5월 3일(금) 모든 교수들이 각자의 전공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술한 책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라'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박원호 총장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한국교회 회복만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직목협 초대회장에 손윤탁 목사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상임회장 김창연 목사)는 지난 4월 29일(월) 서울 중구 남대문교회에서 초대 대표회장 에 이 교회 손윤탁 목사를 추대했다. 손대표회장은 장로회신학대 겸임교수, 한국선교신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선교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직목협은 직장선교사역을 하거나 관심 있는 목회자 모임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법관님들, 어찌하여 양심을 시류에 떠내려 보내십니까?

최근 일선 법원에서는 소위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대하여 거의 '무죄'나,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가 이 '진정한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약 900건이었는데, 최근까지 1심과 2심에서 135건에 대한 판결이 한결같이 '무죄' 판결로 나왔다.

그 같은 결정은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은 법관들이 볼 때에도 진정으로 현저하게 양심에 의하여 신성한 국명의 의무를 거부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미 대법원에서 소위 '양심에 의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난 것이니 따지지도 말고 볼 것도 없이 무죄를 선고하지는 법관들의 동행이든지.

그런데 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은 비록 판결은 그렇게 했지만 거기에는 합당해야 할 이유 10여 가지를 덧붙였다.

이를 살펴보면, 종교의 구체적인 교리가 그러한지?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교리를 숙지하고 철

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병역 거부가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과 경위?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피고인의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확인은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게 한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국명의 의무'

이다.

그런데 특정 종교인들은 자신들은 병역 의무 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다. '양심'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기에 더욱 철저하고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판결해야만 정 국민에 대한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만약 특정 종교를 이용한 병역거부라면 이는 엄격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임영 직전에 입교하거나, 병무청 주관의 대체복무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람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군복무를 통해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한 국민들에게 '비양심'의 굴레'를 씌운, 억울함에 대하여 비웃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본초적 마음이다. 따라서 양심보다 도덕이 앞설 수 없고, 도덕보다 법이 앞설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언어를 방패삼아 법을 어기게 된다면 이보다 나쁜 불법이 어디 있으며, 이는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법은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핑계로 정의마저 무력화한다면, 양심이라는 수단으로 제2, 제3의 사회정의의 파괴행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 매우 우려한다.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무기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전투장면을 하는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한다. 아무리 '가상공간'이라고 하여도 무기류를 들고 타인을 살상하는 장면은 그들이 소위 말하는 '집총거부'의 이유로 삼는 '살의'(殺意)와는 무관한 것인?

http://agpgs.aogk.org

2019학년도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소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 형 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어버이날 맞아 ‘부모님 사랑 뷰티서비스’

월드뷰티핸즈와 신한대학교 공동주최로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세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터 신한대 교수)와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전공 교수 및 학생들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뷰티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지난 5월 3일(금) 신한대학교 뷰티헬스 (오감만족, 지도교수 서수연)과 <신한뷰티포터즈(SBS) 지도교수 최에스터>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이 함께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얼굴과 손발 마사지 및 헬스케어를 통해 그동안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한 부모님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부모님들은 “하루하루 집에서 무료하게 혼자 지내는 수줍어 어르신들로 손녀딸 같은 학생들의 사랑의 손길에 모처럼 미소와 행복이 가득한 하루를 선물로 받았다”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4일(토)에는 신한대학교 뷰티제능나눔 동아리인 신한뷰티포터즈(SBS) 학생들과 빛과 예술로 대표인 김광용 사진작가가 함께 마포북대야케아센터에서 돌보고 계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와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가졌다.

이날 뷰티서비스를 주관한 최에스터 지도교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그동안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한평생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들께 제자들이 뷰티서비스와 사진을 찍어 드릴 때 환하게 웃

는 그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현일 WBH 이사장, 장민욱 사무국장을 비롯한 신한대학교 뷰티헬스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귀신축제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충북 보은군은 미개한 귀신축제를 즉각 멈추라

일선 행정 관청이 전통문화를 빌미로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놀이를 하는 것을 전통문화와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목적으로 행사를 한다 하여 지역이 시끄럽다.

그 동안 충북 보은군(군수 정상학)에서는 ‘신신제’를 지내던 것을 아예 올해부터는 ‘속리산(鬼神)축제’로 바꾸어 막대한 예산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축제를 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군민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하여 반대가 심하다.

특히 보은군기독교연합회 신하의 “75개 교회와 일부 주민들이 ‘군민축제 4억 5천 귀신축제 왜 말인가?’” 문화를 빙자한 신축제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어, 관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축제는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히 미신적인 분위기 가난다. 굿 보존회가 굿판을 벌이고, 신신을 불러들이고, 작두타기를 하고, 십이지신상 놀이를 하고, 남근(男根)을 신당에 봉납하는 행사가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귀신놀음 일색이다.

이것을 굳이 전통문화라고 하면서 군민들의 막대한



혈세를 써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인가? 지자체와 지자체장들의 양식을 의심케 한다.

이는 지자체가 축제를 빙자한 미신문화를 조정하는 것이며, 군민들을 우매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미신을 즐기고, 귀신을 따르는 미개(未開)한 문화에서는 그 사회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보은군에서는 건전한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바란다. 밝은 문화,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면서도, 지역민들의 반감과 반발을 사지 않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지역 축제가 무엇인가? 지역민과 함께 하고 협력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즉각 중지하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에서는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하여 지난 5월 7일(화) 오후 2시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육감들이 대거 선출되면서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인권이란 이름으로 사회체제 개편을 위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다.

얼마 전부터 인천시 등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논의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었거나, 제정이 추진 중인 여러 지역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전국지역 사례발표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육진경 선생(동성애반대 전국교사연합대표)이 발표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폐화에 대해서는 고 송경진 선생의 미망인인 강하정 사모가 발표하며, 전남은 정미경 대표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 부산은 강정희 대표(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대표,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 경상남도에서는 차정화 국장(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사무국장), 강원지역은 한효과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이성재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이 “학생인권조례, 진정 학생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부산대 김원평 교수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2019. 5. 7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탈 동성에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한국상담심리학회, 탈 동성에 상담 회원 제명 논란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결가연)은 5월 11일(토) 국회의원회관에서 ‘탈 동성에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상담심리학회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상담을 한다는 이유로 회원을 영구 제명하는 일이 생겼다. 현재 동성애의 유발 원인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다. 2016년 존스홉킨스대학 연구팀은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검토한 후에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학회는 전문가들이 모여 학문적 소신을 마

음 놓고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상담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지나친 결정으로 보인다.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상담자의 미명행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결정을 한 학회 관계자와 당사자의 증언을 듣고 논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9. 5. 2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300개 단체 연합)

홈페이지: www.agtc.or.kr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9학년도

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제68차 정기총회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고건규 목사
사랑공동체사랑교회



총무 우선원 목사
소망순복음

서울북부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섬돌교회



총무 이인연 목사
홍제은혜교회



회장 정해관 목사
은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조선남 목사
대림발명교회



총무 이혜관 목사
순복음신나교회



회장 제무 주창민 목사
발명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정윤기 목사
성령과 나눔교회



총무 이선호 목사
돌배교회



서기 이현옥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임중혁 목사
참사랑교회



회장 김경연 목사
진리교회



부회장 방은혜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이기경 목사
사랑과성령교회



서기 심은혜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재무, 회계 김홍숙 목사
회복교회

경기지방회



회장 정해관 목사
열린축복교회



부회장 은금옥 목사
선한이웃교회



총무 임현순 목사
순복음아멘교회



서기 안지혜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재무 최금자 목사
은누리순복음교회



회장 조관현 목사
드림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순 목사
은혜와성령교회



부회장 조광선 목사
순복음반석교회



총무 서기 유두환 목사
호평순복음교회



재무 이정옥 목사
산성교회



회장 김경순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정해관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부회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달은산수당



총무 서경오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서기 김호신 목사
순복음천안교회



재무 정세창 목사
안성은혜교회



회장 표현자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회장 김경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경기동부지방회



회장 이세연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총무 김동문 목사
동산중앙교회



서기 최남순 목사
영광교회



재무 조중순 목사
반석순복음교회



회장 김수진 목사
사랑의능력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이석호 목사
대구는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우현 목사
영동표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천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김영식 목사
안양은혜와진리교회



재무 이자혜 목사
부곡은혜와진리교회



회장 윤향민 목사
영동은혜와진리교회



회장 김경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회장 김경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경기북부지방회



부회장 김태권 목사
배곧사랑중앙교회



총무 금기원 목사
알곡교회



서기 김진영 목사
더누리교회



재무 오정순 목사
주심교회



회장 최영희 목사
예준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부회장 · 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서기 육준수 목사
향기타운교회



재무 강인태 목사
순복음본향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강희문 목사
은혜와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총무 지용희 목사
새생명교회

인천서지방회



재무 김동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회장 이진우 목사
주인의교회



부회장 조영만 목사
달산별영교회



총무 · 회계 양호철 목사
빛과성령교회



서기 설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이득삼 목사
무문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재무 · 회계 김병숙 목사
영국천원교회

인천남지방회



회장 김철근 목사
영성순복음교회



총무 김진원 목사
예수이름교회



서기 손인환 목사
새빛교회

강원남지방회



회장 김리함 목사
사랑의순복음교회



회장 박순옥 목사
원주중앙교회



부회장 이성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성경교회



서기 정주영 목사
강릉순복음교회



재무 이종진 목사
주님의요양교회



회장 박규희 목사
원주성령교회



회장 박선순 목사
평강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바울교회



총무 김재두 목사
순복음성신은혜교회



회장 김중배 목사
군인순복음교회



회장 김중배 목사
군인순복음교회



회장 김중배 목사
군인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정윤기 목사
대전영무교회



부회장 이미순 목사
안소성교회



총무 이만규 목사
좋은나무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린영광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인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 회계 이인복 목사
충주순복음교회



재무 오수경 목사
강자순복음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장호순 목사
금강순복음교회



부회장 원문경 목사
세종중앙순복음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는교회



재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창대교회

청주시방회



회장 한창숙 목사
예수사랑교회



회장 정의섭 목사
한소성교회



총무 김성훈 목사
청주성민교회



서기, 회계 김선경 목사
세계로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강원교회



총무 윤영하 목사
한우리교회



서기 박성환 목사
달산순복음교회



재무, 회계 이범구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김경준 목사
후성순복음교회



부회장 신병철 목사
청주주사랑교회



총무 김 동 목사
새희망교회

경남지방회



서기 민병훈 목사
예광교회



재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회장 정재광 목사
순복음성령성교회



회장 권우석 목사
창원순복음교회



부회장 황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린영광교회



서기 권규성 목사
회복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제68차 정기총회

부산지방회



회장 정영진 목사
순복음감리교회



부회장 변경운 목사
순복음침례교회



총무 조정하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



재무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회계 황연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광주지방회



회장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총무 조관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서기 김영호 목사
순복음은혜의강교회



재무 김정순 목사
순복음은혜의복음교회



회계 배영애 목사
순복음엘림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유경연 목사
순복음종은나무교회



총무 최경옥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경호 목사
합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성 목사
별천원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양희철 목사
장복순복음교회



서기 김현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재무·회계 박은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전라지방회



회장 백영자 목사
복동순복음교회



총무 유영근 목사
순복음광안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서백도 목사
목포시내산교회



총무 원기봉 목사
장계순복음교회



서기 홍광희 목사
순복음예천교회



회계 박종성 목사
순복음세상교회

제주지방회



회장 김경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인제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총회진속지방회



순복음참사랑교회 임직예배, 조성훈 목사 취임

“주와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장호순 목사)는 지난 4월 28일(주일) 오후 4시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02-6에 위치한 순복음참사랑교회(담임 조성훈 목사)에서 임직예배를 드리고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홍식 목사(순복음참사랑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원문경 목사(세종중앙순복음교회)의 기도, 재무 김영희 목사(순복음참사랑교회)의 성경봉독, 순복음참사랑교회 교우들의 은혜로운 특송,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순복음금강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장牧사는 이날 행 6:1-7 말씀을 본문으로 ‘직분자의 자격과 목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내용으로 축복하고 격려했다.



이어진 목사취임·장로장립·집사안수·권사취임식에서는 지방회장 장호순 목사가 순복음참사랑교회의 담임목사(조성훈 목사) 취임을 선포하고 축하패를 증정하였고 장로장립(김용태), 집사안수(최세진), 권사취임(강종숙) 및 임직자에게 서약과 안수(위원장 장호순 목사, 오일선 목사, 오승욱 목사, 황수반 목사, 소영진 목사)를 하고 공포하

며 임직증서와 임직패를 수여했다. 중경지방회장 황수반 목사(순복음나눔교회)의 권면, 직전회장 오일선 목사(순복음포도원교회)의 축사,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의 헌금기도, 조성훈 목사의 광고, 교단 중경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추계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폐한 후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두 마쳤다.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이경진 목사)는 지난 5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순복음하늘샘교회(담임 박태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서기 육준수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록 22:21-34 말씀을 본문으로 ‘각오하였나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하였다.



재무 강인덕 목사의 헌금기도, 지방회장 이경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2부 월례회에서는 회원점명, 총무·서기 보

고, 재무보고, 회계보고 후 기타 인건에 대해 토의하고 우광덕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사)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목양신문 지면보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목양신문’ 접속 후
‘목양신문 보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양신문 이메일
mok2677@naver.com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자”

(눅6:38)

안디옥교회 사역자 모집 공고

21세기의 사도행전적인 교회인

안디옥교회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1. 모집인원 : 남, 여 각 1명
2. 모집파트 :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 능숙한 자)
* 남자 - 중고등부 / 청년부 담당 및 교회 전반적인 업무
* 여자 - 초등부 담당 및 교회 사무 업무
3. 사례 : 협의 후 결정
4. 복리후생
(1) 숙소 제공 (2) 기타사항은 협의 후 결정
5. 경력유무 및 학력 : 기독교 정통교단 정규 신학대학교 졸업자
6. 우대조건
(1) 1종 차량운전 가능한 분 (2) 영어에 능통한 분
(3) 영상 편집 및 제작 가능한 분

7. 제출서류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및 신앙 고백서
(양식은 따로 없지만 소명에 대한 확신과 이전 사역에 대한 내용은 필히 기술할 것)
(3) 졸업증명서
8. 전형절차 : 1차 서류면접(이메일 가능) / 2차 면접
baeyh83@gmail.com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안디옥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15-7번지 (세명고 앞)
TEL : (054)281-4611-4 FAX : (054)281-8352

한장총, 베트남 현지서 Happy세미나

베트남은 전국민의 2.5% 300만 명이 기독교인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는 지난 4월 30일(화) 베트남 호찌민 연합장로교회에서 'Happy 연합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한장총에서는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선교위원장 임인기 목사, 선교위원회 서기 이승진 목사 등 7명이 참석을 하였고 베트남 현지에서는 베트남 연합장로교회 총회장 코아(Khoa)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승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송태섭 목사는 "대한민국은 136년 전에 선교사에 의하여 복음이 들어온 후 이제는 173개국에 27,0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회상을 하며, "베트남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여 너무 기쁘고, 한국과 협력하여 선교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베트남 연합장로교단의 총회장 코아 목사는 한장총 대표회장을 비롯한 선교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특별히 베트남에 교회개척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요청을 하였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베트남 현지 연합장로교단의 찬양팀이 찬양을 하였고, 기도도 선교위원회 회의록



서기 김근수 목사, 성경봉독에 선교위원회 회계 이복연 목사가 맡았으며 송태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세미나에서 임인기 목사가 '아담으로부터의 나의 구속사'라는 주제 강연을 하였고, 선교부위원장 김흥수 목사가 '구원론'에 대하여, 선교위원회 총무 강형규 목사가 '목회자의 인식'에 대하여 강연을 하

고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에 손귀영 목사가 '선교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송태섭 목사는 한장총을 대표하여 베트남연합장로교단 총회장 코아 목사와 정영모 현지 선교사에게 후원금과 약품을 전달하였다.

화제의 신간

사랑과 나눔의 세상을 위한 구영서 목사의 행복의 메시지

사랑은 행복을 꽃피우는 삶

탈북인의 아버지 구영서 목사의
생활신앙 단상

날마다 내 영혼을 두드리는 천국의 메시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크리스천이 세상과 구별 없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니다.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행동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요소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약한 자'들과 나누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려는 구영서 목사의 실천으로 행하는 생활신앙의 기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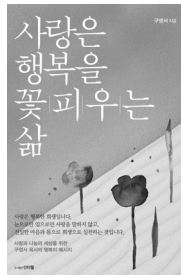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을 일깨우며 오직 말씀에 기초한 삶에서의 행함만이 참 신앙인의 자세임을 보이고 있다.

오늘 지탄받고 추락하는 교회와 붕괴되는 가정, 세상과 물질과 이기심에 얽매어 어지러운 우리 삶과 영혼에, 등단시인이기도 한 저자의 시와 같은 단상으로 잔잔하게 스며들듯 녹아든다.

신앙적 사유가 필요한 목회자와 성도, 일반인 모두에게 적극 추천한다.

저자의 변

사랑은 행복한 희생입니다. 눈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과 몸으로 희생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목사와 북한 선교사로 섬기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실현해야 진실한 사랑이며, 행함이 없는 말뿐

인 사랑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매일 페이스북에 올리는 소박한 소망의 글을 통해 세상과 성경을 함께 보며 묵상하고 느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담아내기엔 부족한 글이지만,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영서 지음 | 152*225 | 244쪽 |
값 15,000원 | 2019년 4월 10일 발행 |
ISBN 978-89-93872-45-3 03200 |
도서출판 인터텔

CTS제주방송, '제5회 함께하는 음악회' 개최

가족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 공연



CTS제주방송(지사장 오동환)이 주최하는 '제5회 함께하는 음악회'가 오는 5월 18일(토) 오후 4시 제주시 아라동 제주성안교회(담임목사 류정길)에서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어린이를 대표하는 주인공 주니가 창조와 비밀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을 그린 가족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사진)'가 무대에 오른다.

서울·광주·대전 등 총 120회 공연.

약 6만 5천여 명 관람

기독교 교육 콘텐츠 기업 '히즈쇼(His show)'가 제작한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는 이 시대의 평범한 부모를 대변하는 '보스'와 '블랙',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프린스 킹',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표현한 '김치맨'과 '깽두기맨' 등 다양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준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공연이지만 그 내용과 질은 프로 작품에 뒤지지 않는다. 실제 있는 뮤지컬 배우를 섭외했고, 뮤지컬 안에 '세상이 원하는 것

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 가자'는 뚜렷한 메시지를 담았다.

CTS 감경철 회장은 "다음세대를 위한 이번 뮤지컬 공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공연을 통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CTS제주방송'은 다음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제주를 밝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지역 주민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이번 뮤지컬 공연은 전석 전좌석 무료로 열린 무대로 진행된다.

한편, CTS제주방송은 주일학교 교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CTS제주방송 아카데미,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제주성안교회에서 개최한다.

재미있는 주일학교 히즈쇼의 노하우를 교사들에게 전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법을 교육한다. 교사강습회는 다음세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교재는 당일 무료로 제공된다.

(공연 및 강습회 문의 064-724-9191)

월드비전, 고양국제꽃박람회 캠페인

꽃기차 ·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안호승)이 오는 5월 12일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꽃길만 달리자' 캠페인을 진행한다.

월드비전은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후원을 통해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로 변화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구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꽃기차 타고 꽃길만 달리자'는 주제로 진행되며, 꽃으로 장식한 기차 모양 부스에서 관람객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꽃기차 부스는 가로 20m, 세로 6m 크기로, 가족 단위 관람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미션 구간으로 구성했다.



미션 구간에서는 자립에 성공한 마을의 사진을 퍼즐로 맞추고 뒤 국가·지역명을 맞추는 퀴즈를 풀어보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마련했다.

월드비전 안호승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꽃박람회를 방문한 분들이 잠시나마 지구촌 이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전세계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위한 자립마을은 월드비전 국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정과 지역 사회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 월드비전이 떠난 후에도 스스로 아이를 보살볼 수 있는 마을을 뜻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월드비전은 전 세계 54개 국에서 1,417개 자립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꽃 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오는 5월 12일까지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행사에는 30개국에서 3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해 꽃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월드비전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로 4년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참가해 빈곤, 내전 지역의 아동이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1 손상된 신세포조직(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순응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성, 류마티스관절염, 강직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 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 (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45주년 감사예배

교파초월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에 빛이 되어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흥호 목사)가 개교 4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2일(목)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정흥호 총장과 교직원 및 교수들, 학생들과 동문들이 함께한 가운데 신본주의와 복음주의로 달려온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인도하실 밝은 미래를 조망했다.

정흥호 총장의 인도로 드러진 예배는 최영섭 목사(마음안교회)의 기도, 라흐마니노프클래식 앙상블의 특별 연주에 이어 최규정 목사(학부 동문회장)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4:12-17 말씀을 본문으로 이 땅에 비추어진 참 빛이라는 제자의 설교를 통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에 빛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명을 좇아 한 마음으로 달려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특별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20년

및 30년 동안 힘써온 교수와 직원들에게 근속패를 수여했다.

최장덕 직원과 김동일 직원은 30년 근속패를, 박영규 교수와 육상근 직원은 20년 근속패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임명희 목사(광야교회)와 박영운 목사(신대원 동문회장)가 축사를 전했다. 교가 제창에 이어 정흥호 총장의 인사 및 광고, ACTS별전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식, 김현래 목사(예은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국제적이고 교회연합적인 대학으로 1974년 개교 이후 지난 45년 동안 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학부과정으로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 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가 있으며 융합 전공 학·석사 연계과정, 국제 교류, 그리고 터문화권 체험을 위한 특성과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 방안 토론회

엘로카펫 효과성 증진 통한 엘로카펫 효과 연구 발표

이동용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은 국제아동인권센터(대표 이양희), 이용호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2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어린이통학로 안전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하게 횡단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 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엘로카펫이 아동의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학로 안전보장을 위한 지역 사회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 교통안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정책연구처장이 ‘엘로카펫 설치효과 분석연구’를 주제로, 안

효섭 한국 3M 교통안전사업부 박사가 ‘엘로카펫의 시인성 증진 효과 검증 및 교통안전 영향 분석 연구’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엘로카펫은 국제아동인권센터가 고안한 것으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공간을 노란색으로 구분해 아동들이 안전한 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고 운전자들은 색 대비를 통해 ‘엘로카펫’ 구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지대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엘로카펫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전국 91개소의 엘로카펫을 설치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영적 씨앗을 뿌리는 전도법

요즘의 교회는 정제되고 하루하루 바닷가의 썰물이 되어 성도들은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전도를 해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을 모르는 목회자는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역시 생각으로는 날마다 전도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엔 가끔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돌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주위 친구 목사들과 대화를 해 보면 지금은 전도가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나 자신이 어려워졌을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 전도세미나를 듣고 참석해보았다. 이 전도세미나는 아주 강력하고 빠른 전도법이었다.

전도대상자를 만날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현장

에서 바로 이식하는 모습 자체였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또 요 1:12 말씀을 입으로 따라 하게 해서 현장에서 구원시키는 전도법이었다.

전도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신앙고백을 하고 가족들의 모든 인적사항을 맡겨 영적 열매를 뿌림과 동시에 함께 그 주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박영수 목사를 만나 가족세트 전도법 12주 과정 을 배우고 숙지하여 교회를 살리는데 동참한다면 놀라운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강력히 추천한다.

세트전도 본부총무 이현우 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강원도 산불 피해 교회에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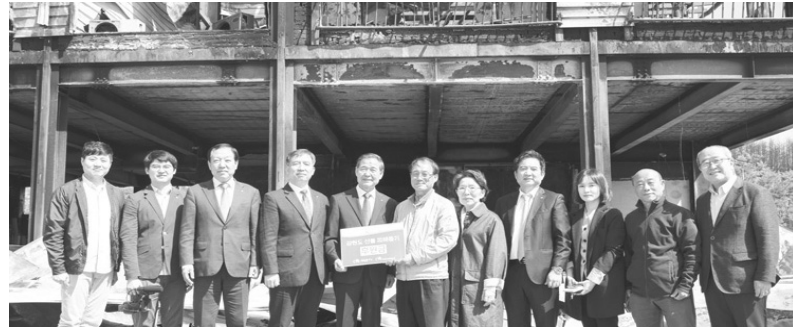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과 임원들

CTS기독교 TV(이하 CTS) 감경철 회장과 고장원 사장 등 임직원들은 지난 5월 3일(금) 강원도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교회를 직접 방문해 ‘CTS 7천 마라톤(CP 허명환)’을 통해 모인 후원금 1억 1천 2백만 원’을 피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했다.

지난 4월 강원도 산불 소식을 접한 CTS는 보도팀과 제작팀을 피해 현장에 급파해 현지 소식과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방송을 통해 전했다. 특히 ‘CTS 7000 마라톤’은 생방송으로 특별 모금방송을 준비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3주간 전했다. 모인 후원금을 CTS 임직원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신해 전하게 됐다.

산불로 완전 전소된 설악산교회(합동, 유광신 담임목사)와 원암교회(기감, 이격호 전도사)를 방문한 CTS임직원들은 일부 파손된 교회를 돌아보고, 피해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눴다. 특히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하며, 교회의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총 7개 교회에 후원금



을 전달했으며, 또한 산불로 유일하게 사망한 오봉교회 (故) 김영갑 성도와 그의 가정, 그리고 망상교회 탁영희 집사 등 7가정을 봉포경신교회에 초대해 CTS임직원들이 직접 후원금을 전달했다.

특히 교회 복구가 긴급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일부 주택에만 피해 보상을 진행하고 교회에 대한 피해 배상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상당한

개인 피해자들에게 정부에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피해 시민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사랑과 헌금을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이는 시간이었다.

박신혜 홍보대사,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수상

박신혜 기아대체 홍보대사가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박신혜 기아대체 홍보대사가 ‘올해의 필란트로피 셀러브리티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신혜 홍보대사는 기아대책을 통해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후원과 봉사를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이하 APA) 측은 “2009년에 함께 살아가는 내발 아이들을 만난 것을 계기

로 2011년부터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국내외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및 수많은 선행 활동을 하고 있다”고 시상 배경을 설명했다.

박신혜 홍보대사는 2011년 5월 기아대책 홍보대사에 위촉된 후 기아대책의 국내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에 관심을 갖고 국내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후원에 힘써왔다. 2017년에는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가정을 위해 팬들과 함께 김장 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부터 팬들과 함께 ‘별빛천사 프로젝트

트’라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나와 필리핀에 다목적 교육센터인 ‘신혜센터’를 건설했다. 2015년부터 아시아투어 수익금을 기아대책에 기부해 왔다. 2016년에는 기아대책의 고액후원자 모임 ‘필란트로피클럽’에 위촉된 바 있다.

박신혜 씨는 “나눔으로 얻어지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신 부모님과 기아대책에 감사하다”며 “나눔 프로젝트마다 먼저 나서서 함께해 주시는 별빛천사 팬들과 소속사에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 예방
7. 헛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수가 잘 빠진 천일염입니다”

전국의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또는 이웃돕기 선교회 등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전국여교역자국 2019 춘계 단합기도회

“이슬 같은 여호와와 은혜를 바라보자”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 위해 헌신 다짐



한순남 목사
전국여교역자국 국장

전국여교역자국(국장 한순남 목사) 2019 춘계세미나 및 야외회가 지난 4월 29일(월)~30일(화) 1박 2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반송로 163 반송순복음교회(담임 한순남 목사)에서 열려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온상인 WCC와 WEA를 비롯 이단 사이비, 동성애가 기존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온 이때 바른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땅끝까지 성경대로의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바른 복음전파를 위한 사명감당을 위해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전국에서 한자리에 모인 여교역자들은 교단과 교회, 여교역자국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마음 되어 기도했다.

2019 춘계단합기도회 첫날인 29일(월) 오후 4시 성령의 단비가 오랜 기쁨 끝에 생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이

틀간의 춘계단합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이날 개회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 차장 김바울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하늘소리 찬양단과 이규택 전도사의 색소폰연주, 교단 전직부총회장 정부용 목사(교본 대림멜렐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장 27:27-32 말씀을 본론으로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아름이 한탄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은총으로 팔미암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부산지방회 여교역자들의 헌금찬양 속에 헌물을 드리고 제목기도로 교단 재무 조경희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의 발전과 개교회 부흥을 위해, 김순자 목사가 ‘여교역자국 목사

님들의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김종애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각각 기도를 인도한 뒤 교단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저녁식사 후 열린 부흥회는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조은주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총회장 임용재 목사는 다양한 목회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하고 탄대한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후 회원들은 여교역자로서 목회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을 간증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

고 힘이 되었다.

이에 회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느라 이 땅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폐회예배에서는 여교역자국장 한순남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여교역자국 회원들은 둘째 날 아침 맑게 개어 화창해진 날씨로 인해 기분까지 상쾌해진 가운데 부산의 명소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다.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귀한 시간을 함께했다. 여교역국 회원들은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 사명을 일깨웠으며 성령의 역사로 큰 은혜를 받아 목양지에서도 더욱 힘을 얻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부흥회설교
임용재 목사
총회장

개회예배 설교
정부용 목사
교본 전직부총회장

개회예배 대표기도
김바울 목사
차장

특별기도1
조경희 목사
교단 재무

특별기도2
김순자 목사
총무부장

특별기도3
김종애 목사
사회부장

진행
조영란 목사
기획부장

부흥회 대표기도
조은주 목사
광주지부장

헌금기도
최정희 목사
예배부장

폐회예배 대표기도
안선자 목사
정보부장



춘계 여교역자 단합기도회에서 주님을 만나다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춘계 여교역자 단합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단 여교역자님들의 숨어 있는 뜨거운 열정과 복음에 감동함을 보았습니다. 성경 요엘서 2:28 말씀대로 무리가 다함께 모여 전히 기도케 힘쓰는 순간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소나기가 내렸고 정부용 목사의 설교를 통해 모든 교역자님들의 회개와 기도로 거룩한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한순남 여교역자 국장님의 영력과 리더십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서로 서로 사랑하는 교역자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단과 여교역자님들의 발전적인 비전을 보았습니다.

특히 부산지방회 여교역자님과 전국의 지부장님과 임원들의 헌신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낌없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의 불로 죄가 소멸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악한 질병이 사라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확신에 찬 소망으로 사랑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단의 여교역자님들을 통해 교단의 정체성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였으니 이제부터 여교역자님들의 섬세한 목회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실 것을 기대합니다. 1박 2일의 춘계 단합기도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만남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총회장 임용재 목사 드림

초대시

이제인 // 은혜와진리교회 장로

바로 오늘, 나는

내 삶의 뒀안길을 바람처럼 달려오다
 명든 가슴 지친 육신 의지할 것 전혀 없어
 살아도 산 것 아닐때 주님 날 부르셨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오- 바로 오늘, 나는 참 행복자로라.

내 작은 눈 크게 뜨고 뒤질세라 뛰어오다
 돌아보니 눈물자욱, 충혈된 눈 허망함뿐
 홀연히 네 눈 감으라, 너는 나를 보리라
 “예, 제가 장님 되오리다” 주님
 오- 바로 오늘, 나는 참 영의 눈 뜬 자로라.

은혜 위에 은혜받아 새 것 되어 영생하세
 지친 자여 가난한 자여 곤한 자여 내게 오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 바로 오늘, 나는 참 성공자로라.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글을 주님께 바칩니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탈북민 암 환자 후원

탈북민 현 상황 경청 “신앙으로 희망 버리지 말라” 격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정총)은 지난 4월 23일(화) (사)한국기독교 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대표회장 정성진 목사, 이

하 한정협)를 방문하여 탈북민 중 암으로 투병하는 배 씨(49세), 라 씨(51세), 조 씨(79세, 딸 대리참석)에게 후원금을 각각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을 가졌다.

한정협 사무총장 석사현 장로는 탈북민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현재 33,000여 명의 탈북민이 있고, 최근에도 한 달에 100여 명의 탈북민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리 정부에서의 정착지원이 충분하지가 않은 실정이며 이들을 위한 정착지원에 대한 한정협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송태섭 목사는 참석하신 탈북민의 남으로 오게 된 경위 및 한국에서의 생활, 현재 암으로 투병하는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정총은 금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가이기를 받는 베이비박스 사역현장 난민 등을 방문하여 격려한 바가 있다.

방문에는 총무 김고현 목사, 사무총장 김명일 목사가 함께했다.



사설

진정한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다

코언 전 미 CIA 부국장이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대북제재가 외교와 경제, 군사적 신호를 포함해 힘을 보여주는 다른 수단과 함께 사용돼야 협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한 말을 꼼꼼히 봐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전쟁 방지와 동북아의 힘의 균형자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진정 북핵 협상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의 핵 폐기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가 북미 핵 협상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힘을 비롯해 제재 등 여러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내가 힘을 다 빼고 무장해제한 다음에 협상을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해 미국이 손을 떼면 우리가 다 해줄 것처럼 앞서가진 안 된다.

지금도 국제사회의 약속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에게 먼저 제재를 해제해 줄 경우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오히려 핵무장을 돕는 결과가 되고 만다.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발판으로 대북제재, 군사적 힘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진정한 대화를 통해 북한이 바라는 경제발전을 위해 핵 폐기의 길을 설득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강대국 틈에 끼 있는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선 치밀한 ‘외교정책’을 적극 구사해야 한다. 정부가 나만 옳다는 식의 이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까이 다가가고 귀를 기울여야 주변국 외교에 성공할 수 있다.

북한과 대화를 이야기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된 생각을 돌려세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거꾸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과대평가해서 국제사회에 옮기기 바쁘다.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선전했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이전인수 식 해석이었음이 밝혀졌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평화를 구해야 한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사 2:4, 미 4:3) 하나님은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배역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신다.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신 20:12),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불이교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명하시기를 원하노라”(대상 12:17) 이렇듯 성경은 거짓 평화에 대응할 것과 하나님의 책명이 임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 도다”(렘 9:8)

‘인권’에 대한 진정한 의미

최근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부모가 자녀의 E-메일을 열어본다든지 여자의 아이에게 살거지를 시키면 이를 인권 침해로 여겨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하든지, 지역 신문에 의견을 내라’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도대체 이런 교육을 시키라고 집필기준을 준 교육부와 이를 집필한 저자와 출판사는 뭔가? 진정 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를 불신하게 하고 부모에 의한 가정의 당연한 훈육까지도 불법으로 처벌하려 하는가?

‘인권’에 대한 의미는 인간으로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지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정하는 ‘인권’이라는 의미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절대 기준점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닐 수 있으며 가정의 불화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에도 현재도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정에서 사랑으로 양육되고 가정 구성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도리를 배우는 것은 인류 수 만년의 전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교육 지향점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 사회적·가정적 가치관과는 동떨어진 오직 일방통행식이며 오만한 태도로써 용납할 수 없는 시도라고 본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이 같은 교과서 내용은 역사적 인 가족전통과 보편적인 사회 구성원 등의 인식에도 부합할 수 없는 것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국가적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서를 절대 반대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가족 내의 심각한 불신을 조장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왜곡된 인권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내용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이 같은 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9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제68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거룩한 능력을 덧 입자' (요 17:17)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8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19년 5월 20일(월)
2. 등 록 : 5월 20일(월) 오전 11시
3. 개회예배 : 5월 20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20일(월) 오후 2시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19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임 웅 재

5월 19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9년 5월 19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임 웅 재
총 무 목사 신 재 영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9회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5월 20일(월)
오전 11시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오후 2시 정기총회)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전국사모회 회원



고문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고문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사모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증경회장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회장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수석부회장 이정화 사모
은혜와찬양교회



1부회장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총무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부총무 서수영 사모
은혜충만교회



서기 이정희 사모
순복음은혜의강물교회



부서기 전희진 사모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김세희 사모
과산순복음교회



부회계 조순자 사모
순복음복된교회



재무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윤금자 · 총무 신명희 (010-5483-4005)